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유학

계명대학교

류가영

2590025

일본에서 약 4개월간의 유학생생활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정한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유학생생활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어로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대화해보는 경험은 제가 세상을 더 넓게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을 배워 일본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업을 통해 처음 왔을 때보다 일본어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또 문화교실을 통해 화과자도 만들고 기모노도 입어보며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유학생 친구들도 만들고, 일본인 친구도 사귀어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도쿄 뿐만이 아니라 카와고에, 홋카이도 등 여러 장소로 여행도 가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라오케를 가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티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걸어보고, 새해에는 신사에 참배도 가보며 일본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반 년 간의 유학생생활은 짧지만 저에게 많은 추억과 용기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일본을 떠나야 하는 게 아쉽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여러 나라로 떠나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주셨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